

금융선진화를 위한

# 금융감독 혁신방향



금융감독위원회



## 보고순서

**I. 금융허브 구축의 요건**

**II.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**

**III. 최근 금융감독 환경의 변화**

**IV.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향**

## I. 금융허브 구축의 요건

# I. 금융허브 구축의 요건



## Ⅱ.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

1

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제고하여 미래 성장기반 마련

## ■ 리스크 관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 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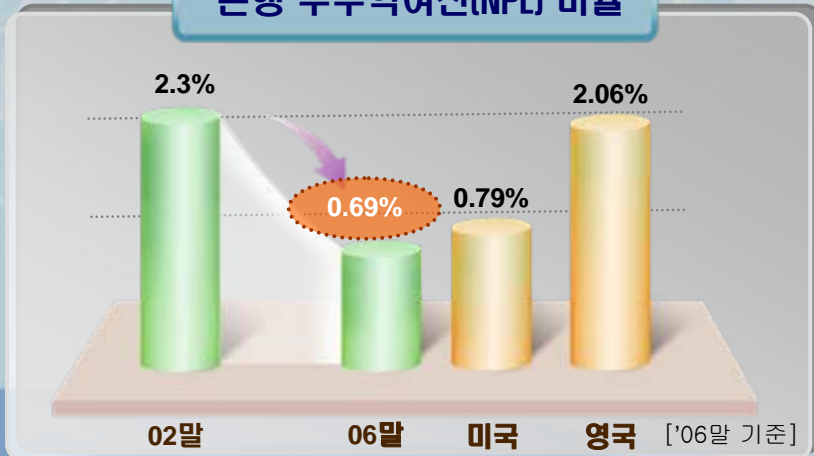
- 금융산업 리스크 조기경보(Early Warning) 시스템 구축
-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(RM) 제도 시행으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
- 기업 신용위험 및 금융회사 리스크 상시 평가제도 도입

## ■ 금융회사들이 부실 발생에 충분히 대비토록 건전성 기준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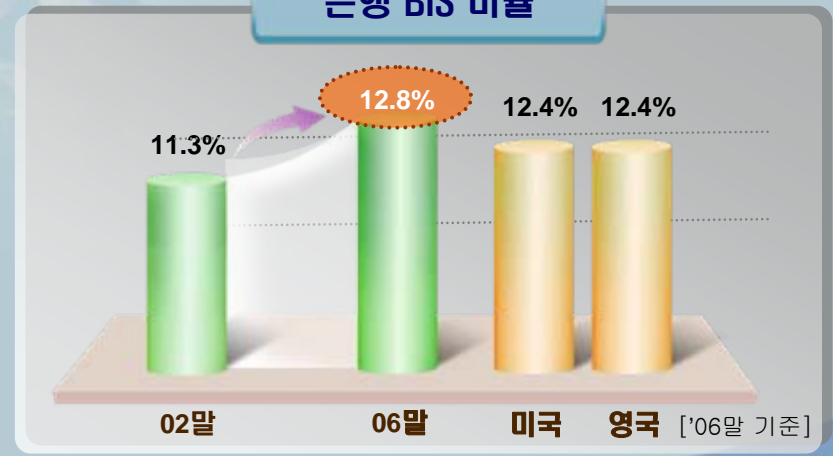
-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엄격 적용

➔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

은행 무수익여신(NPL) 비율



은행 BIS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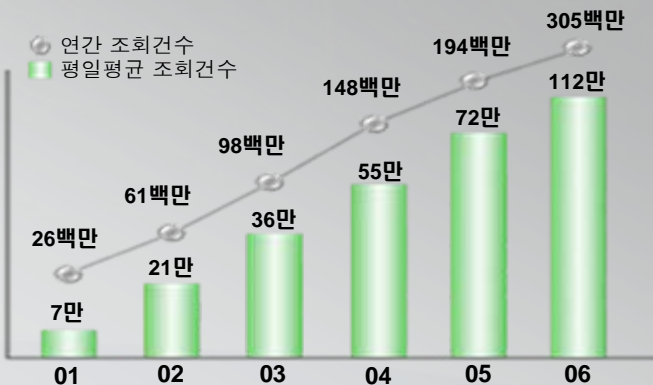


##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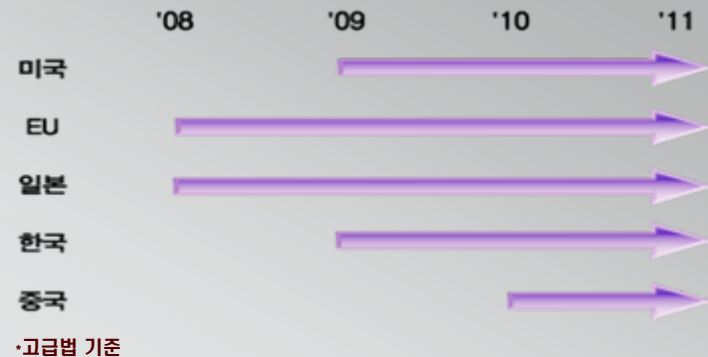
### 금융감독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업그레이드

- 각종 행정지도 및 내부지침을 규범화하여 감독행정의 투명성 제고
- 선진적 전자공시시스템(DART)을 구축, 49개국 해외투자자가 이용
-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
  - 신BIS협약이 09년부터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
  -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\*을 마련(2011년 시행 예정), 회계기준의 선진화 추진
- \*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,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회계기준 적용
- 비조치의견서(No-Action Letter)제도 도입 등 감독방식 개선

#### DART 조회건수 추이



#### 국가별 신BIS 도입 계획



## 3

### 국제적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

- 적극적인 금융외교 활동을 전개,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
  - 아시아, 유럽, 미주지역 등 지역별 감독기관과 네트워크 구축
- 감독정보 교환 등을 위해 외국 감독기관과 양해각서(MOU) 체결
  - 07.6말 현재 13개국 19개 기관과 MOU 체결
-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등을 통해 주요 금융감독 관련 아젠다를 이슈화하고 국가위상 제고
  - IOSCO 연차총회(03.10), IMF 거시감독회의(06.11), IIF 규제회의(07.5)등 개최

외국 감독기관과 MOU체결 현황



금융감독 국제회의 개최



##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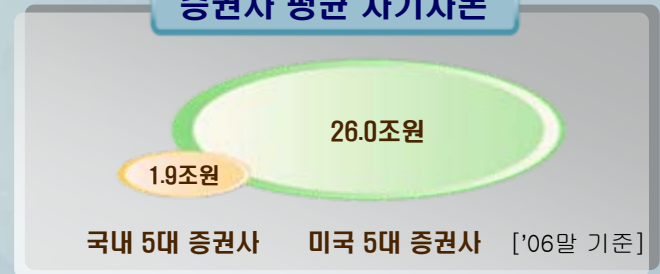
###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취약

- 카드사태 등의 여파로 감독기관, 금융회사 모두 부실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주력
- 적극적인 시장개척보다는 유사상품으로 국내시장에서 안주
- ➔ 인수·합병(M&A)을 통한 대형화나 해외진출 노력 미흡

#### 은행 자산 규모



#### 증권사 평균 자기자본



## 2

### 규제개혁의 체감도 미흡

- 시장변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개혁과 국민경제상 필요에 따라 일부 규제를 신설
- ➔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금융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외국인의 체감도는 미흡('03년 이후 총 325건 규제완화)

### 3

#### 감독관행의 투명성 및 감독인력의 전문성 부족

-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제수준에 근접하였으나, 감독관행과 행태는 여전히 미흡
  - 금융회사 입장보다는 감독기관 편의위주의 감독·검사 행태 여전
  - 구두협조 요청, 불투명한 지시 관행 잔존
  -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보다는 위규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 지속
- ➔ 금융허브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(KDI, '07.2), 40%이상이 '감독관행 등의 혁신'이 필요하다고 응답
- 감독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화 역량도 상대적으로 부족

	접근방식	투명성·예측가능성	자체규율 정도	검사방식
선진국	금융회사 위주	높음(공개·매뉴얼)	자체평가 위주	지도 위주
우리나라	감독기관 위주	낮 음	감독기관 평가 위주	위규적발 위주

## 500대 기업중 금융회사가 111개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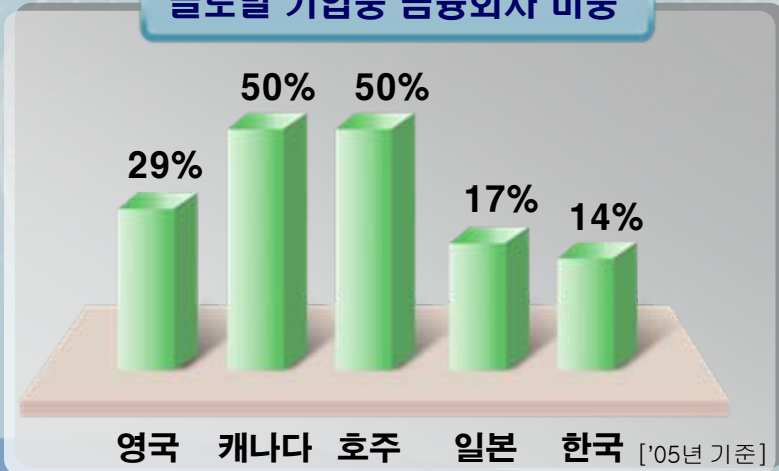
\* 매출액기준 : 금융 24.2%, 정유 14.1%, 자동차 9.6%, 통신 4.4%, 전자 4.2%

- 우리나라는 500대 기업중 14개가 포함되어 있으나, 이중 금융회사는 2개(삼성생명, 국민은행)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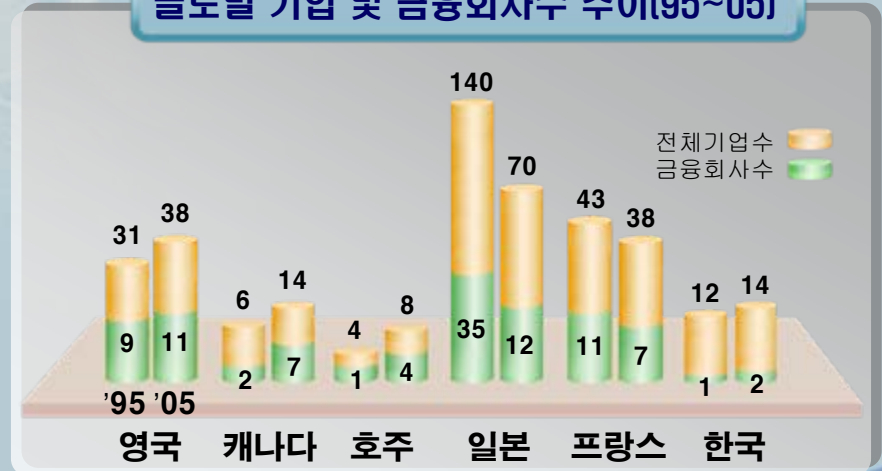
금융업이 발달한 영국 등은 500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, 일본 등은 크게 감소

→ 글로벌 금융회사가 있어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을 시사

글로벌 기업중 금융회사 비중



글로벌 기업 및 금융회사수 추이(95~05)



## Ⅲ. 최근 금융감독 환경의 변화

### Ⅲ. 최근 금융감독 환경의 변화

####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

-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경간 자본이동 급증
-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자산운용행태 변화 (예금→투자)

#### 금융회사간 경쟁 심화

- 칸막이식 업무규제 완화로 금융업종간 경계 모호
-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진출 확대

#### 새로운 금융거래 증가

- 다수의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출현
-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금융상품 등장

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혁신 필요

## IV.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향

금융 선진화를 통한  
금융허브 달성

한국판  
금융빅뱅 유도

금융감독시스템 및  
관행의 선진화

금융소비자 권익  
보호 및 금융이해도  
제고

미흡한 점을 중심으로 “금융감독 3대 핵심과제”를 추진

그동안 마련한 성장기반

건전성이 확보된  
금융회사

선진국 수준의  
감독 시스템

국제 금융협력  
네트워크

1-1

##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업무다각화 유도

-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진입·퇴출제도를 개선,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
  - 자금력과 경쟁력, 전문성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진입 허용
  - 경쟁력 없는 금융회사는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퇴출기준 정비
- 자본확충, 인수·합병(M&A) 등을 통한 대형화 적극 유도
  - 연기금의 은행지분 투자 확대, 대주주 증자, 생보사 상장 추진 등 권역별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
  - 인수·합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
- 영업·상품개발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업무다각화 유도
  -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, 보험상품 심사제도 전면 재정비 추진
  - 파생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도입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

# 〈참고〉 영국의 금융 빅뱅

## 국제 금융시장 석권

외환거래 1위  
파생상품거래 1위

## 경제성장 견인

1인당 GDP 3만불  
달성(2004)

Big Bang

국제 금융센터로  
재도약

### 경쟁 촉진

- 진입장벽 완화
- 퇴출기준  
엄정 적용

### 시장 개방

- 적극적 외자 유치
- 국제적 M&A  
활성화

### 제도 개혁

- 금융서비스법 제정
- 통합 감독기구  
출범

1-2

## 내실있는 해외진출 적극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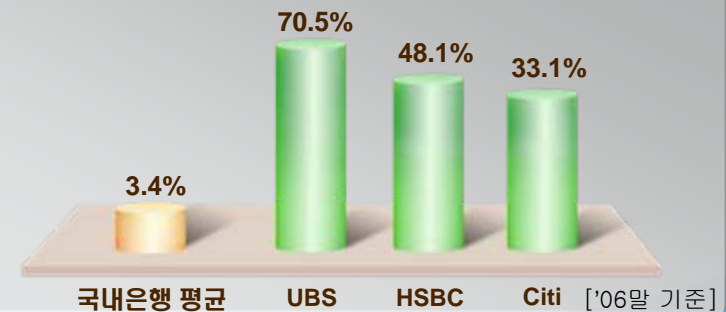
- 우량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신설을 자율화
  - 은행의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협의 기준을 대폭 간소화  
→ 건전성 관련 지표 등 기본요건 충족시 신설 허용
- 현지밀착 경영을 통해 장기적 성장기반을 구축토록 유도
  - 현지화(localization) 우수점포에 대해서는 감독상의 인센티브 부여
- 감독기관의 해외사무소를 해외진출 전략 기지화하여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
  - 해외진출 추진 금융회사에 신규진출 전략·정보 전수
  - 기 진출 금융회사에 금융감독정보를 DB화 하여 제공

금융회사 해외점포 현황

	아시아	북미	유럽	기타	합계
은행	68	14	16	15	113
증권	23	8	7	-	38
보험	33	17	6	-	56
합계	124	39	29	15	207

[’06말 기준]

해외점포 수익비중



2-1

## 선제적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

- 감독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
  - 은행의 신BIS협약(09), 보험사의 리스크기준 자기자본(RBC) 제도(09.4) 도입
  -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검사범위 결정(취약부문 집중점검)
-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에 감지,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
  - 복합금융상품 · 신종금융거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
  - 한은 · 예보와 공동검사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, 시장불안에 대응
  - 쏠림현상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 증대시 선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법적근거 정비

### 평 상 시

- ➔ 리스크 관리 중심의 감독 · 검사
- ➔ 상시감시 체계 유지 및 조기경보시스템 가동

### 위 기 시

- ➔ 시스템 리스크 증대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
- ➔ 한은 · 예보등과 협조, 공동대응

2-2

##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시스템으로 전환

감독행정의  
투명성·예측가능성  
제고

- 인허가 가이드북 마련
- 검사 매뉴얼 공개
- 검사 예고제 실시

감독인력의  
전문성·도덕성  
강화

-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
- 직무훈련(OJT) 강화
- 윤리강령 준수

금융회사의  
감독·검사부담  
최소화

- 서면검사 적극 활용
- 자체 규율기능 강화
- 경영 컨설팅 활성화

감독 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의 주기적 평가 → 미비점 개선

3-1

##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

### ■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

- “핵심설명서제도” 도입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공시범위를 확대
- 주식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체제 정비
-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시장규율 확립

### ■ 영세자영업자·서민 등 금융이용자의 권익 제고

-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
-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약관심사 및 표준약관제도 도입
- 은행의 여신전문금융 자회사 설립 유도 등을 통해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

### ■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·감독을 강화

- 규제대상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금융관련 법규에 명시
- 공정위와 긴밀한 협조체제(MOU체결)를 구축함으로써 이중규제 해소

### 3-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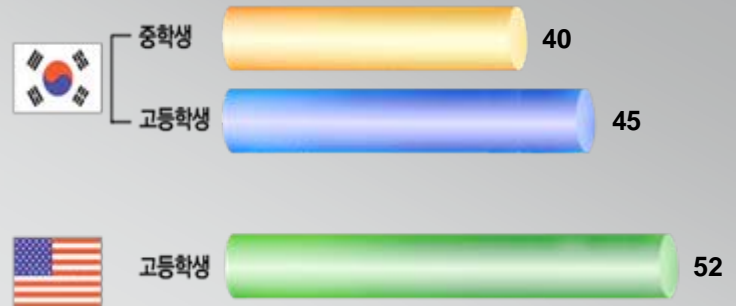
###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한 금융이해도 제고

-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·청소년의 금융이해도를 제고
  - 금융백일장, 금융교육 시범학교 지정, 우수논문 공모대회 개최
  -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부문 보강
- 주부·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활성화
  - 금융교육 강좌 개설, 알기 쉬운 금융책자 제작·배포
- 금융 유관기관의 거래고객을 상대로 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
  - \* 증권업협회, 자산운용협회 등은 '06년부터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중

청소년 금융교실



한국 학생의 금융 이해력(FQ)



# "21세기 금융강국 KOREA의 초석"

“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 
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금융감독기관”

금융시장 안정

글로벌 플레이어  
출현

금융감독시스템  
선진화

“금융감독 3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”

# 감사합니다



금융감독위원회